보도자료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상
선학평화상

2022년 2월 12일 배포

총 2쪽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기자

담당: 02-3278-5158, +82-10-2936-9138 www.sunhakpeaceprize.org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 개최’
팬데믹에서 백신 평등 주목

사라 길버트 박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자),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The Vaccine Alliance) 공동수상

- **사라 길버트(옥스퍼드대 백신학 교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자**
- **세계백신면역연합,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코로나19 백신 공평한 분배**
- **2월 12일(토) 오전 10시 경기도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온-오프로 개최**

선학평화상위원회(위원장 호세 마누엘 바로소 前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는 2월 12일(토) 오전 10시 경기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제5회 선학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경기도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었으며, 해외참석자들을 위해 13개 언어로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제5회 선학평화상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백신 평등’에 주목했다. 제5회 수상자는 공동 수상으로 사라 길버트(Dame Sarah Catherine Gilbert, 59세, 옥스퍼드대 제너연구소 백신학 교수)박사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Vaccine Alliance, 2000년 설립)이 선정됐다.

사라 길버트 박사는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고 저렴한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하였다. 길버트 박사는 팬데믹을 인류 공동의 문제로 여

기고 백신을 공공재로 접근하였으며, 백신 판매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백신을 개발하여 현재까지 전 세계 182개국에 25억 회 이상을 공급한 공로가 높게 평가되었다.

사라 길버트 박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오직 협력할 때 바이러스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적인 해로운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며 서로 협력한다면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래 감염병 대응 방향에 대해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래에는 공평한 백신 공급이 이뤄지도록 전 세계 백신 제조시설의 수를 늘려야 하며, 백신뿐 아니라 질병을 관리하고 밝혀내는 첨단기술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백신을 공정하게 배분하려는 목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주도하여 저개발국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호한 공적이 크게 인정되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0년 팬데믹 발발 직후부터 현재까지 144개국에 10억 회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였다. 세스 버클리 세계백신면역연합 대표는 스위스 현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이러스는 분열을 통해 번성하지만, 오직 연대로 물리칠 수 있다”며 “팬데믹은 과학이 선물한 ‘백신’이라는 도구가 빈부에 상관없이 전 인류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때 비로소 종식될 수 있다. 사라 길버트 박사와 세계백신면역연합은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백신국가주의와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이끈 어벤져스와 같은 영웅이다”라고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각 50만 달러의 상금과 메달이 수여됐으며, 설립자인 한학자 총재와 호세 마누엘 바로소 선학평화상위원회 위원장이 메달과 상패를 수여했다.

선학평화상은 100만 달러(한화 11억원 상당)의 시상금과 함께 수여되며, 미래 세대의 평화와 복지에 현격히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된다.